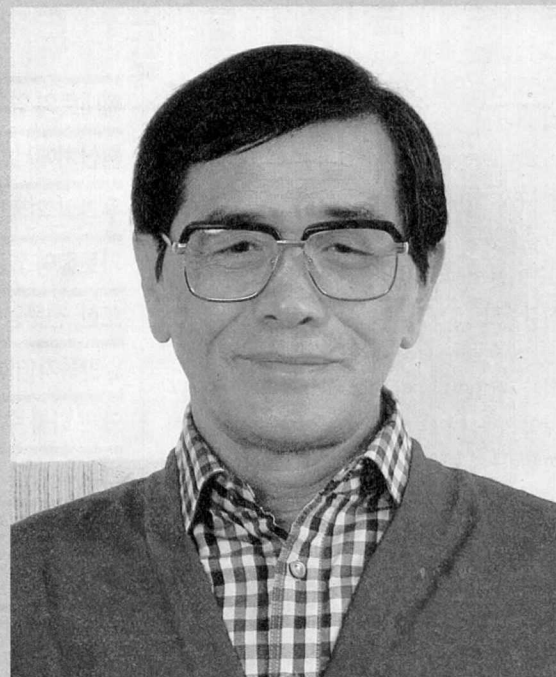




## 영문학자의 책架

# 呂石基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前 고려대 교수



### 서재斷想

아파트로 옮겨올 때 제일 거추장스러웠던 것이 책이었다. 이방저방으로 분산해 놓고 보니 책齋라는 실감이 나는 방은 하나도 없게 됐다. 정리하는 것이 귀찮아서 여기저기다 꽃아두었더니 필요할 때 책을 찾는데 애를 먹는다. 이따금씩 정리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다보면 나의 藏書는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하는 착각이 생기기도 한다.

게다가 책처럼 增殖하는 것도 드물다. 재화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생각한다면 이건 어이없는 俗物의 思考겠지만 그거야 은행 같은데 맡겨버리면 통장 하나로 그만인데, 책은 부피를 줄일 수 없는 게 속성이다. 그래서 '문화적'인가보다 하는 역설적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장서가처럼 보일런지 모르나 그렇지는 않다. 책에 관한 한 나는 아주 합리적 이어서 전공이나 거기 類하는 책 이외는 별로 소장하는 일이 없다. 여기 사진에 찍혀 있는 부분도 연극관계 서적 뿐이다.

틀림없이 읽으려고(아니면 연구하려고) 사모은 책들이다. 그런데 훗 돌려보니 저것들을 어느 천년에 다 읽지? 더구나 요즘 같으면 집에 돌아와 신문이나 잡지 나부랑이를 뒤적이는 게 고작인데.

그래서 나의 '서재'는 虛慾의 상징처럼 느껴질 뿐이다. 서재는 지금의 내 생활 가운데서 가장 아쉬운 삶의 空白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사진·주명덕

